

치료감호소의 만성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김 성 천* · 노 혜 련**

본 연구는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심한 음성증상을 보이고 치료진이 약물치료외에는 다른 어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능력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1997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간 매주 1회 1시간씩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훈련받은 평가자 2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음성양성증후군 평가표(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을 조사한 결과 환자들의 음성증상과 일반정신병리 증상이 프로그램의 실시이후 실시하기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병동에서 환자들을 관찰한 간호사와 프로그램 중 관찰한 특수치료가 작성한 척도조사의 결과도 환자들의 대화가 많아지고 얼굴표정이 다양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이 만성정신장애인의 정서적·정신적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밖에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다른 어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만성정신장애인이 쉽게 참여하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가 있다.

I. 서론

동물매개 프로그램은 서구사회에서 동물을 교제와 놀이 상대로 기르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동물간의 상호작용이 인간에게 막연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의 전문분야로 개발되었다.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동물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반려동물¹⁾과 함께 노인을 위한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에 방문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동물매개 프로그램은 훈련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1) 이전에는 주로 일반가정에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키우는 동물을 “애완동물”(pet)이라 하였으나 애완동물이란 용어는 인간이 동물을 일방적으로 보거나 만지면서 즐긴다는 의미를 암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람과 동물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인정하여 동물을 한 가족, 반려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용어를 선호한다.

된 반려동물이 매개가 되어 훈련된 자원봉사자나 전문가의 지도하에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료적 효과를 꾀하는 동물 매개활동과 치료로 발전하게 되었다(Burch, Bustad, Duncan, Fredrickson & Tebay, 1995: 55-63).

동물매개 프로그램은 크게 사람이 동물을 직접 다루게 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하는 수동적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직접 동물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치료 효과를 꾀하는 상호작용적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에서의 상호작용적 프로그램은 다시 반려동물 주거 프로그램과 방문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 프로그램에서는 동물들이 직원이나 원생들의 보살핌 속에서 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나, 방문프로그램은 동물을 특별히 선별하고 훈련시켜 주인,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특정 날짜와 시간에 정해진 시간동안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동기유발 또는 교육적, 오락적, 치료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Delta Society, 1992). 따라서 방문프로그램은 주거프로그램보다 제한적인 호스피스 프로그램이나 병원에서와 같이 환자에 대한 심도깊은 보호를 요하는 곳이나 동물들을 적절히 보살펴 줄 수 없는 시설 또는 직원이나 원생들이 자주 교체되는 곳에서는 보다 적합한 프로그램이다(Ryder, 1985: 339).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동물 매개프로그램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동물인 개를 훈련하여 실시하는 방문프로그램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반려동물 방문프로그램에 대해 연구는 그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가능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다 많은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자극제가 되기도 하고(Ryder, 1985: 339) 상당한 치료적 효과를 갖게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Beyersdorfer & Birkenhauer, 1990: 13-17; Francis, Turner & Johnson, 1985: 201-106; Haughie, Milne & Elliott, 1992: 367-372; Hendy, 1987: 279-291; Kongable, Buckwalter & Stolley, 1989: 191-198; Meed, 1992; Neer, Dorn & Grayson, 1987: 300-304; Savishinsky, 1986: 31-41; Siegel, 1993: 157-167; Verderber, 1991: 164-173).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선진 서구사회에서 주로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고 아직까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견 방문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선행연구에 관한 고찰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물매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중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소

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동물매개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다. 한 예로 주의결함 과잉행동장애와 품행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들을 반려동물원(Companionable Animal Zoo)에서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매주 5시간씩 학습하고 직접 보살피는 자연교육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결과 공격적인 행동의 감소, 교사와의 협조적 관계의 향상, 학습에 대한 관심과 교실내 행동 통제력이 향상되었다(Katcher & Wilkins, 1994). 또한 개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있는 자폐장애 청소년들을 점진적으로 치료견에 노출한 결과 개의 머리를 쓰다듬을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이웃의 개들을 보기 위해 산보갈 수 있게 되었다(Burch & Grill, 1991). 반면 사회관계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자폐장애인의 경우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심층적 사례연구는 밝히고 있다(McNicholas & Collis, 인쇄중).

한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동물매개 프로그램에 대해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는 프로그램이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국에서는 재소자들이 직원들과 함께 새를 보살피는 일을 하면서 이들간의 관계가 향상되었고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도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Meed, 1992). 또한 1975년 미국의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에게 고양이, 염소, 새 그리고 농장의 소동물을 키우게 하는 동물매개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동물을 키운 수감자들이 그렇지 않은 수감자들에 비해 보다 덜 폭력적이었고, 적절한 사회행동이 증가하였고, 위반행위가 감소되었고 약물복용할 필요가 감소되었다(Burch, 1994: 52-54). 미국 Washington에 소재한 여성을 위한 최대 경비의 교도소인 Purdy 치료센터에서 개를 활용한 치료를 실시했을 때도 유사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수감자 중 개 훈련사로 선정된 사람에 의해 훈련된 개는 반려동물로 가정에 배치되었고 그 중 고도의 훈련을 받은 개는 장애인들을 위한 원조견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감자들은 원조역할을 할 수 있는 동물을 훈련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기에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자존감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Maggitti, 1988: 26-29).

동물매개 프로그램 중 반려동물 방문프로그램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 2개 병동의 여성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개가 병동을 방문했을 때 환자 자신들간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직원과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다(Haughie, Milne & Elliott, 1992: 367-372). 한편 알츠하이머병을 갖고 있는 양로원 환자들은 매주 개의 일종인 골덴리트리버와의 상호작용을 갖는 시간을 가진 결과 자신들은 물론 직원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향상되었고 보다 침착해 졌다. 또한 이러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일에 대한 동기를 증진시켜 사기와 직원-환자간의 의사소통의 향상과 더불어 환자들에 대한 보다 양양된 보호로 환언되는 것도 볼 수 있었다(Beyersdorfer &

Birkenhauer, 1990: 13-17). 알츠하이머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개가 있음으로 해서 환자들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으나 개를 시설에 영구적으로 분양하는 것이 일시적인 방문보다 더 효과적이지는 않았다(Kongable, Buckwalter & Stolley, 1989: 191-198). 또한 장기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 노인 환자들에게 6주동안 매주 1시간의 오락활동세션과 반려동물치료세션을 제공하고 비교·연구한 결과 노인들은 반려동물치료세션에서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반응과 많은 웃음을 보였고 이러한 효과는 끝까지 유지되었다(Kalfon, 1991: 3-6).

또한 3개의 노인시설에서 이루어진 반려동물 방문프로그램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방문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재창조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avishinsky, 1986: 31-41). 노인들은 자신들의 가족, 건강, 동숙인, 종교적 신념, 직업경험과 그들이 포기한 집에 관한 개인적 정보를 자원봉사자와 기꺼이 나누었다. 이러한 예상치 않았던 사회적 효과는 추억에 대한 상기와 동물들을 가지고 온 자원봉사자와의 친밀감과 연대감을 통해 가능하였다. 반려동물은 상호작용의 초점이기보다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동물들은 사회적 촉매제 역할을 하여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쉽고 즐겁게 해 주었다. 그러나 Hendy(1987: 279-291)는 환자들로부터 미소와 생기를 끌어내는 데는 사람만의 방문도 반려동물만의 방문이나 반려동물과 사람간의 방문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방문하는 반려동물보다는 사람들이 양로원 노인들에게 보다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반려동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로원을 방문하게 하고, 보다 자주 그리고 오래 머무르게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필수적이었다.

한편 거의 사회적인 접촉을 못하고 있는 시설 노인들에게는 반려동물 그 자체가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촉각적 접촉의 한 원천일 수 있다. 개들이 2개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노인들을 관찰한 결과 85-93%의 노인들이 각각 개를 평균 15-25번 쓰다듬거나 만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Neer, Dorn & Grayson, 1987: 300-304).

동물 방문프로그램은 미국 한 양로원의 암환자들로 하여금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죽어가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환자를 피하곤 하는데 동물들의 조용하고 수용적인 자세는 환자들로 하여금 인생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힘과 자유를 주는 효과가 있었다(Muschel, 1984).

그렇지만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동물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설 노인을 매주 2번씩 12주 동안 방문한 한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반려동물과의 긍정적인 경험이 있었고 현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만이 우울증, 불안, 분노, 피로감, 혼란 등의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향상되었다(Ryder, 1985: 339).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연구는 정신분열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양성증상은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의 만성화로 인해 나타나는 심한 음성증상 때문에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1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음성증상은 구체적으로 위생관리, 일상생활훈련과 눈 맞춤 결핍, 감정표현과 대인관계 형성능력의 부재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병동 내에서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우두커니 서 있는 등 매우 낮은 기능상태를 보였다.

2. 연구의 진행과정

본 연구는 본 연구팀이 삼성 애버랜드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고 있던 반려견 매개 프로그램에 대한 신문기사를 읽은 치료감호소 직원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치료감호소에서는 반려견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들의 음성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였다.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1997년 1월부터 3월 석달동안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2회가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에는 매회 연구원 2명(사회복지사), 치료감호소의 특수치료사 1명, 반려견 사육사 2-3명(삼성 애버랜드의 전문사육사) 및 자원봉사자 3-4명,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5-6명과 평균 6마리의 반려견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치료감호소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특수치료사, 재활치료사와 사회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반려견 매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매우 좋은 편이었다. 프로그램은 겨울에는 실내인 중강당에서 주로 실시되었고 봄이 되면서부터는 실외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초반(1회-5회)에는 연구 대상자와의 관계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반려견을 매개로 연구자와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음성증상의 완화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발견하고자 하였고, 1주일동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중반 이후부터는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을 도입하여 환자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했고 대인관계의 빈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날씨가 좋은 날은 프로그램을 실외에서 진행하기도 했는데 연구 대상자들은 이를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 선호하였다.

3. 연구효과의 측정 방법

본 연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평가방법이 사용되었다.

1) PANSS 검사

본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의 양성 및 음성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양성음성증후군 평가표(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를 사용하였다(<표 1> 참조).

<표 1> 양성음성증후군 평가표(PANSS)

척도	망상(Delusions)
양성척도 (Positive Scale)	개념의 와해(Conceptual disorganization)
	환각행동(Hallucinatory behaviour)
	흥분(Excitement)
	과대성(Grandiosity)
	의심/피해(Suspiciousness /persecution)
	적개심(Hostility)
	둔마된 정동(Blunted affect)
음성척도 (Negative Scale)	감정적 위축(Emotional withdrawal)
	빈약한 신뢰감(Poor rapport)
	수동적/무감동적 사회적 위축(Passive/apathetic social withdrawal)
	추상적 사고의 장애(Difficulty in abstract thinking)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흐름의 결여(Lack of spontaneity and flow of conversation)
	상동적 사고(Stereotyped thinking)
일반정신병리 (General Psychopathology Scale)	신체적 관심(Somatic concern)
	불안(Anxiety)
	죄책감(Guilt feelings)
	긴장(Tension)
	반복적 동작과 자세(Mannerisms and posturing)
	우울(Depression)
	운동지체(Motor retardation)
	비협조성(Uncooperativeness)
	이상한 사고 내용(Unusual thought content)
	지남력 장애(Disorientation)
	주의장애(Poor attention)
	판단과 병식의 결여(Lack of judgment and insight)
	의지의 장애(Disturbance of volition)
	충동조절장애(Poor impulse control)
몰두행동(Preoccupation)	
능동적 사회적 회피(Active social avoidance)	

총 3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양성 및 음성 증상척도는 7개 문항의 양성척도, 7개 문항의 음성 척도와 16개 문항의 일반 정신병리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척도의 총점수는 각 척도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를 합제한 것이 된다. 각 문항은 “없음”, “최경도”, “경도”, “중등도”, “중고도”, “고도”, “최고도”의 7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는 1점에서 7점으로 한다. 따라서 양성척도와 음성척도에서는 총점이 각각 7~49점의 범위에서 나타나며, 일반 정신병리 척도에서의 총점은 16~112점의 범위에서 나타난다.

PANSS에 대해 적절한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두 사람 이상의 훈련된 평가자가 같은 면담내용을 기초로 하여 동시에, 그러나 독립적으로 PANSS평가를 수행한다. 그러한 경우, PANSS 평가와 척도의 점수들은 모든 평가자들의 산술적 평균으로부터 도출되거나 개별평가에 대한 토론을 한 후 따로 합의하여 일치된 점수로부터 얻어져야 한다. 최근 연구는 PANSS의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가 0.83-0.87임을 발견하였으며, 양성 및 음성증상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PANSS가 Andereasen 방법과 높은 상관관계($r=0.77$)가 있음을 보였다(Stanley et al. 1991: 11-12). 또한 다차원적 정신약물에 관한 연구는 PANSS는 장기적으로 사용할 때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있을 뿐 아니라, PANSS의 구조적 타당도, 분별적 타당도, 수렴적 타당도 및 예측성 타당도가 있음을 지지하였다(Stanley et al. 1991: 12).

본 연구에서는 PANSS에 대한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임상심리사가 동일한 시점에서 실시한 사전과 사후조사를 통해 얻은 점수의 평균으로 각 척도의 점수들을 도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점수를 one-paired T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척도질문

본 연구에서는 반려견 방문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담당 의사, 간호사와 작업치료사가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면 하는 변화에 대해 물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이 되었던 환자들은 모두 심한 음성 증상을 보이는 만성 정신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변화는 주로 음성 증상의 완화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1) 자원봉사자나 직원, 환우들과 대화를 잘 나눈다.
- (2) 얼굴 표정에 변화가 있다.
- (3) 세수, 목욕 등 자신의 청결과 위생에 관심이 있다.
- (4)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 (5) 의욕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한다.
- (6) 감정표현을 잘 한다.
- (7) 여가나 오락활동에 관심이 있다.
- (8)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관적인 평가척도인 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과 관련되어 “상태가 가장 나쁠 때가 1이고 가장 좋을 때가 10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는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는 척도표를 병동에서 환자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간호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특수치료사로 하여금 각각 작성하게 하였다.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이 동시에 평가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변화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척도표는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1회와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매회 작성하도록 하여 세션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척도점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환자의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 특수치료사와 간호사 2명이 각 환자에 대해 평가한 척도점수를 합계하여 평균을 내어 작성하였다. 또한 도표에는 매회 작성된 척도점수 중 간호사의 경우 4개, 특수치료사의 경우 5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3) 관찰과 면접내용

프로그램 진행시 연구팀과 자원봉사자들은 환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관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병동의 간호사와 특수치료사와의 면접을 통해 환자들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질적인 평가도 병행하였다.

4. 연구의 한계

- 1) 본 연구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여건상 실험집단과 유사한 통제집단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연구의 사전과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연구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 2)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개별 대상에 대한 연구가 기준선 설정의 미흡으로 통계분석이 적합하지 않아 도표를 통한 변화를 제시한 것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IV. 연구결과

1. 양성음성증후군 평가표(PANSS) 결과의 분석

(1) 종합적인 결과

<표 2>는 PANSS의 양성, 음성 그리고 일반정신병리 증상척도의 사전과 사후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사전조사 결과만 살펴보면 연구대상자들의 양성증상의 점수는 평균 2.96점으로 “경도”에 속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반면 음성증상의 점수는 평균 4.67점으로 거의 “중고도”에 이르고 있어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은 의도했던대로 양성증상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음성증상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정신분열병의 전반적인 심각도를 측정하는 일반정신병리증상은 3.46점으로 “경도”와 “중등도”의 중간에 속해 있었다.

사전조사의 결과를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양성증상의 점수에는 별 변화가 없었고, 음성증상과 일반정신병리증상의 점수에는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음성증상과 일반정신병리증상의 점수는 각각 평균 0.61점과 0.62점이 낮아져 음성증상은 그 심각성이 “중고도”에 가까웠던 것이 “중등도”로, 일반정신병리증상의 경우에는 “경도”와 “중등도”의 중간정도에서 “경도”보다 더 양호한 “최경도”의 수준을 향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이 환자들의 음성증상과 일반정신병리증상의 완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종합적인 결과

	조사순서	평균	표준편차	T	p
양성증상 척도	사전조사	2.96	0.82	-0.7734	0.4556
	사후조사	2.83	0.80		
음성증상 척도	사전조사	4.67	0.51	-2.5411	0.0274
	사후조사	4.06	0.86		
일반정신병리증상 척도	사전조사	3.46	0.26	-5.6766	0.0001
	사후조사	2.84	0.26		

(2) 양성증상의 사전·사후 조사결과

<표 3>은 양성증상의 7개 문항 각각에 대한 사전·사후조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려견 방문 프로그램의 실시전과 후의 양성증상에 관한 점수에는 각 문항을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이 되었던 환자들이 주로 음성증상을 보이는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양성증상 척도

변 수	조사순서	평 균	표준편차	T	p
망상	사전조사	3.67	1.60	-1.4591	0.1725
	사후조사	3.17	2.05		
개념의 와해	사전조사	3.96	1.03	1.2918	0.2229
	사후조사	4.25	1.20		
환각행동	사전조사	3.13	1.82	0.5829	0.5717
	사후조사	3.46	1.74		
흥분	사전조사	2.46	1.25	-0.4212	0.6817
	사후조사	2.29	1.14		
과대성	사전조사	1.83	0.78	0	1.0000
	사후조사	1.83	1.07		
의심/피해	사전조사	3.25	1.14	- 0.8760	0.3997
	사후조사	3.00	1.07		
적개심	사전조사	2.42	1.29	-1.5835	0.1416
	사후조사	1.79	0.78		

(3) 음성증상의 사전·사후 조사결과

<표 4>에 의하면 음성증상 척도의 7개 문항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둔마된 정동과 감정적 위축, 상동적 사고가 p 값이 .05 수준에서 그리고 수동적/무감동적 사회적 위축은 .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둔마된 정동과 상동적 사고의 점수는 각각 평균

1.12점과 1.04점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도가 전자는 “중고도”에서 “중등도”로, 후자는 “중등도”에서 “경도”로 한 단계씩 감소되었다.

<표 4> 음성증상 척도

변 수	조사순서	평 균	표준편차	T	p
둔마된 정동	사전조사	5.04	1.03	-2.8857	0.0148
	사후조사	3.92	1.44		
감정적 위축	사전조사	4.88	0.96	-2.5445	0.0273
	사후조사	4.17	1.05		
빈약한 신뢰감	사전조사	4.29	1.25	-0.5266	0.6089
	사후조사	4.04	1.54		
수동적 / 무감동적 사회적 위축	사전조사	4.67	0.72	-1.9149	0.0819
	사후조사	4.04	1.18		
추상적 사고의 결여	사전조사	5.00	1.15	0.1015	0.9210
	사후조사	5.04	1.05		
대화의 자연스러움과 흐름의 결여	사전조사	4.71	0.94	-1.1713	0.2662
	사후조사	4.17	1.50		
상동적 사고	사전조사	4.08	0.76	-2.5384	0.0276
	사후조사	3.04	1.57		

(4) 일반정신병리 증상의 사전·사후 조사결과

<표 5>는 일반 정신병리증상 척도의 16개 각 문항에 대해 반려견 방문 프로그램 실시전과 실시후의 조사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문항의 평균점수는 사후조사에서 일관되게 낮아지고 있고 긴장은 p 값이 .001 수준에서, 이상한 사고내용, 지남력 장애와 능동적 사회적 회피는 .01, 불안, 죄책감과 의지의 장애는 .05, 우울과 충동조절장애는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죄책감, 지남력 장애, 긴장과 능동적 사회적 회피는 각각 1.05점, .96점, .88점과 .79점 낮아져 그 심각도가 거의 1단계씩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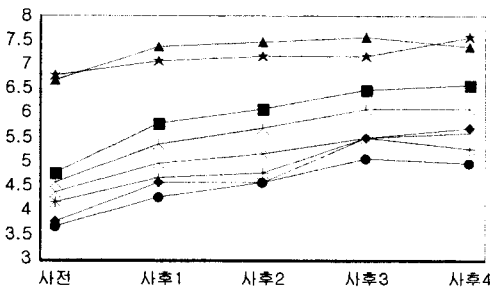
<표 5> 일반정신병리증상 척도

변 수	조사순서	평 균	표준편차	T	p
신체적 관심	사전조사	3.13	1.40	-0.9027	0.3860
	사후조사	2.63	1.68		
불안	사전조사	3.08	0.70	-2.7449	0.0191
	사후조사	2.25	0.72		
죄책감	사전조사	3.13	1.05	-2.7292	0.0196
	사후조사	2.08	1.41		
긴장	사전조사	3.38	0.74	-4.7065	0.0006
	사후조사	2.50	0.56		
반복적 동작과 자세	사전조사	3.75	0.89	-1.2395	0.2410
	사후조사	3.33	1.12		
우울	사전조사	3.63	0.64	-1.9952	0.0714
	사후조사	3.08	1.02		
운동지체	사전조사	3.42	0.76	-3.3618	0.0063
	사후조사	2.79	0.96		
비협조성	사전조사	2.75	1.31	-0.3350	0.7439
	사후조사	2.58	1.10		
이상한 사고내용	사전조사	3.33	1.44	-3.2781	0.0074
	사후조사	2.25	1.52		
지남력 장애	사전조사	4.17	1.44	-3.6243	0.0040
	사후조사	3.21	1.78		
주의장애	사전조사	3.42	1.00	0.1039	0.9191
	사후조사	3.46	1.31		
판단과 병식의 결여	사전조사	4.88	1.05	-1.0318	0.3243
	사후조사	4.63	1.25		
의지의 장애	사전조사	3.54	0.69	-2.8611	0.0155
	사후조사	2.88	0.64		
충동조절장애	사전조사	2.50	0.71	-2.0765	0.0621
	사후조사	1.92	0.77		
물두행동	사전조사	3.17	0.44	-1.5913	0.1398
	사후조사	2.50	1.30		
능동적 사회적 회피	사전조사	4.08	0.79	-3.6443	0.0039
	사후조사	3.29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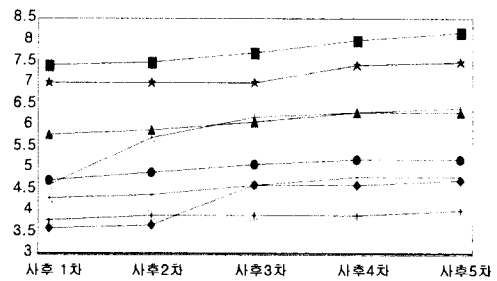
이상의 분석에 입각해 볼 때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의도했던대로 환자들의 음성증상에 의미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음성증상의 완화는 정신분열병의 전반적인 심각도를 나타 내는 일반 정신병리증상에도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프로그램은 환자 들의 양성증상과 관련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이는 예상되었던 결과였다.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애초부터 양성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구대상자들의 양성증상은 이미 프로그램의 실시전부터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2. 척도질문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 분석

<도표 1>과 <도표 2>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11명의 환자에 대해서 간호사들과 특수치료사가 관찰한 척도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한 평균점수를 도표화한 것이다. 간호사는 병동 내에서 프로그 램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평가하였고, 특수치료사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의 환자들의 모습을 평가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모두 실시하였으나 특 수치료사의 경우에는 사후조사만을 실시하게 되었다.



<도표 1> 간호사들의 척도점수



<도표 2> 특수치료사의 척도점수

■ 자원봉사자나 직원 환우들과 대화를 잘 나눈다.	× 의욕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한다.
◆ 얼굴표정에 변화가 있다.	* 감정표현을 잘 한다.
▲ 세수, 목욕등 자신의 청결과 위생에 관심이 있다.	● 여가나 오락활동에 관심이 있다.
∩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적절하게 반응한다.

<도표 1>은 각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담당 환자들에 대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낸 것으로서 환자들의 병동 내에서의 변화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각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는 일관 되게 높아져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원

봉사자, 직원, 환우들과 대화를 잘 나눈다', '얼굴표정에 변화가 있다', '의욕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한다' 등 3개의 항목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세 항목에서는 평균 1.6점 정도가 올라갔고 척도의 중간점수인 5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무엇보다도 타인과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얼굴표정이 없고, 의욕이 없는 등의 심각한 음성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서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에 놀랄만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표 2>는 특수치료가 프로그램내에서 환자들을 관찰하면서 측정된 척도점수를 합산하여 도출한 평균점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특수치료사는 각 항목에서 간호사의 경우보다 작은 긍정적 변화(0.2점-1.1점)를 보고 있었는데 이는 특수치료사는 이미 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한 연유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초기부터 양호하게 평가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수치료가 처음부터 간호사보다 평균 0.5점 정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간호사: 평균 4.8점, 특수치료사: 평균 5.3점). 특수치료사의 경우 평가항목 중 특히 '얼굴표정에 변화가 있다'는 항목에서는 사후 1회 조사에서는 평균 3.6점이었던 것이 사후 5회에서는 평균 4.7점으로 나타나 평균 1.1점이나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다.

3) 개별적 면접과 관찰에 의한 평가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1명의 환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한두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특히 얼굴표정이 다양해졌고, 예전보다 타인과 보다 편히 대화하게 되었고, 처한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반려견에만 관심을 보이고 함께 간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굳은 표정을 짓던 환자들이 점차 사람에게도 부드럽고 밝은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질문을 해야만 단답형의 '예'나 '아니오'로 답하던 이들은 점차 반려견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는 '또 언제 오냐'고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반려견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돕기위해 참여한 다른 사람과도 눈을 마주치거나 웃는 등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병동 생활로도 이어져 병동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가끔씩만 관심을 표현하던 한 환자는 프로그램이 4회째 실시되고 난 후에는 거의 모든 일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병동 내에서는 단답형으로만 대화하던 한 환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초기에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전혀 감각이 없는 듯 행동하던 환자들도 점차적으로 '기쁘다', '즐거웠다', '슬프다'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들로 인해 이들은 최소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나아졌고 병동 내에

서도 음성증상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특이한 사실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동 내에서보다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기간 동일한 환자를 대상으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진행하자 약 8회가 지난 시점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과 흥미가 일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만성정신장애인에게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특히 음성적인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안고 있는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미흡하였다고 비판을 받더라도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다른 어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만성정신장애인이 쉽게 참여하고 나름대로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는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의 효과를 실험연구나 통계분석이 가능한 단일사례연구를 통해 입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타당도와 신뢰도가 입증된 척도를 통해 훈련된 평가자 두 사람에게 의해 신뢰성 있게 조사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의 음성증상과 일반 정신병리증상이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 이전보다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이 연구기간동안 약물치료 외에 어떤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환자라는 점에서 그들에게서 발견된 변화는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의 효과라고 보다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실시한 척도조사의 결과도 환자들의 대화가 증가하고 얼굴표정이 다양해지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려동물이 인간의 정서적, 정신적 기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특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음은 만성정신장애라는 특수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1. 프로그램 효과의 유지에 관한 문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많은 효과가 프로그램이 끝난 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여건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의 유지와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려견 프로그램이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1시간 가량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실시 중 연구대상자들이 나타내는 변화를 일상생활에서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에 시설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유지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방문프로그램의 실시 중 환자의 치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시설직원의 참여를 통해 일차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환자와 정신질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시설직원과 동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간의 협조관계를 통해 프로그램 중에 환자가 보여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 방문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의 기능 향상을 보인 대상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고 기존의 프로그램에는 새로운 대상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종료한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2.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참여율과 흥미의 감소의 문제: 장기간 같은 대상자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참여율과 흥미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한 기능 향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동시키고 새로운 대상자를 참여시켜야겠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분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반려동물을 다양화하고 레크리에이션과 같은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상과 시설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기록을 담은 프로그램 매뉴얼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프로그램 초기에는 동물들과의 활동을 중시하고 갈수록 인간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자원봉사자의 사전교육 미비의 문제: 정신질환자들과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은 반려견을 다루는 방법뿐 아니라 프로그램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기술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야만 이들과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수시로 참고할 수 있는 활동지침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반려견의 위생에 관한 문제: 실내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환자들에게 반려견이 질병을 옮길까 봐 걱정하였고 강아지의 변이나 털 등으로 인한 문제를 걱정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 전에는 반려견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고 진행 후에는 강아지의 변이나 빠진 털 등을 깨끗이 치운 후 귀가하여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한다면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은 만성정신장애인을 위한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의 장점 중의 하나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환자들의 자연스런 상호작용을 쉽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다. 만성 정신장애인과 같이 대화의 주제가 제한되고 의사소통이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원봉사자들과 이 환자와의 만남을 수월하게 해 준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들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단순히 동물을 쓰다듬거나 끌고 다니게 함으로써 그들과 편안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점이 될 것이다. 환자들의 치료가 목적이거나 현재 시설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나 다른 치료사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치료목표의 달성과 유지를 위한 협조관계를 이루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환자의 전반적인 치료계획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 속에서 환자가 받는 자극을 일상생활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역시 전문적인 도움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yder, 1985: 335). 본 연구에서도 특수치료사와 간호사의 참여는 환자들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반려견 방문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대상자들에게 동물과의 유대를 맺게 하는 것인가, 자극을 주기 위해서인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동물과의 유대를 맺는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을 동일한 동물에 자주 노출시켜야 할 것이고, 환자에게 그 동물이 중요한 애정의 대상이 되고 여건이 허락되면 그 사람에게 분양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대상자들에게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다양한 동물들을 활용하고(Ryder, 1985: 335-342)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Beyersdorfer, P. & D. Birkenhauer. 1990. "The Therapeutic Use of Pets on an Alzheimer's Unit."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Care and Related Disorders and Research*. 5. pp. 13-17,
- Hart, L. 1995. "The Role of Pets in Enhancing Human Well-Being: Effects for Older People." In I. Robinson (Ed).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에서 재인용.
- Burch, M., L. Bustad, S. Dumcan, M. Fredrickson, J. Tebay. 1995. "The Role of Pets in Therapeutic Programmes." In L. Robinson (Ed).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 pp. 60-61.
- Burch, M. 1994. "The World's Best Therapists Have Wet Noses." *Bloodlines*. 76. pp. 52-54,
- Burch, M., L. Bustad, S. Dumcan, M. Fredrickson, J. Tebay. 1995. "The Role of Pets in Therapeutic Programmes." In L. Robinson (Ed).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에서 재인용.
- Delta Society. 1993. *Pet Partners: Helping Animals Help People with Animal-Assisted Activities Workshop Manual*. Delta Society. Renton, WA,
- Arkow, P. 1992. *Pet Therapy: A Study and Resource Guide for the Use of Companion Animals in Selected Therapies*(7th Ed.). pp. 9-10에서 재인용.
- Francis, G., J. Tumer & S. Johnson. 1985. "Domestic Animal Visitation as Therapy with Adult Home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22. pp. 201-206.
- Haughie, E., D. Milne & V. Elliott. 1992. "An Evaluation of Companion Pets with Elderly Psychiatric Patients." *Behavioural Psychotherapy*. 20. pp. 367-372.
- Hendy, H. 1987. "Effects of Pet and/or People Visits on Nursing Home Resi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5. pp. 279-291.
- Kalfon, E. 1991. "Pets Make a Difference in Longterm Care." *Perspectives*. 15(4). pp. 3-6,
- Hart, L. 1995. "The Role of Pets in Enhancing Human Well-Being: Effects for Older People." In I. Robinson (Ed).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에서 재인용.
- Kay, S., L. Opler & J. Lindenmayer.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for Schizophrenics." *Psychiatry Research*. 인쇄중,
- Stanley, R., S. Kay, A. Lewis & L. Opler (저). 한국안센메디칼부 (역). 1991.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 평가지침

- 서」. pp. 11-12에서 재인용.
- Kongable, L., K. Buckwalter & J. Stolley. 1989. "The Effects of Pet Therapy on the Social Behavior of Institutionalized Alzheimer's Cli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 pp. 191-198.
- Maggitti, P. 1988. "Nor Iron Bars a Cage: The Story of Pets in Prison." *The Animal's Agenda*. July August. pp. 26-29, Burch, M., L. Bustad, S. Duncan, M. Fredrickson, J. Tebay. 1995. "The Role of Pets in Therapeutic Programmes." In L. Robinson (Ed).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에서 재인용.
- Meed, A. 1992. *Prisons-Therapeutic Benefits of Birds.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Animals and Us*, Burch, M., L. Bustad, S. Duncan, M. Fredrickson & J. Tebay. 1995. "The Role of Pets in Therapeutic Programmes." In I. Robinson (Ed).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에서 재인용.
- Muschel, L. 1984. "Pet Therapy with Terminal Cancer Patients." *Social Casework*. 65(1-10). p. 452.
- Neer, C., C. Dorn & I. Grayson. 1987. "Dog Interaction with Persons Receiving Institutional Geriatric Care." *Journal of the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191. pp. 300-304.
- Ryder, E. 1985. "Pets and the Elderly." *Veterinary Clinics of North America: Small Animal Practice*. 15(2). pp. 335-342.
- Savishinsky, J. 1986. "The Human Impact of a Pet Therapy Program in Three Geriatric Facilities." *Central Issues in Anthropology*. 6(2). pp. 31-41, Hart, L. 1995. "The Role of Pets in Enhancing Human Well-Being: Effects for Older People." In I. Robinson (Ed). *The Waltham Book of Human-Animal Interaction: Benefits and responsibilities of Pet Ownership*. Pergamon에서 재인용.
- Siegel, J. 1993. "Companion Animals: In Sickness and in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49. pp. 157-167.
- Stanley, R., S. Kay, A. Lewis & L. Opler (저). 1991. 「양성 및 음성 증상 척도 평 가치침서」. 한국안센메디칼부 (역). p. 12.
- Verderber, S. 1991. "Elderly Persons' Appraisal of Animals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throzoös*. 4. pp. 164-173.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Visiting Companion Dog Program on People with Chronic Mental Disability

Kim, Sung Chun · Noh, Hele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visiting companion dog program on people with chronic mental disability. Visiting companion dog program was carried out for one hour every week for about three months between January and March of 1997 for chronic schizophrenic patients with severe negative symptoms and evaluated by the treatment team as those who are incapable of participating in any other program aside from medication. In order to measure the effects of the program PANSS: Positive and Negative Syndrome Scale was conducted by two trained evaluat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rease in scores of negative symptoms and general psychopathological symptoms. Moreover, scaling scores reported by the nurses and occupational therapist also reveal that the patients show positive changes such as improvement in conversational interaction and facial expressions. Such results evidence that companion animals can have positive emotional and mental influence on people with chronic mental disability.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visiting companion dog program became a program that the chronically mentally disabled who could not participate in any other program can easily participate and enjoy is a meaningful finding in and of itself.

Tel : 02-820-5177

Fax :

천리안 : SC132

Tel : 02-820-0502

Fax : 02-822-3486

Email : hnoh@saint.soongsil.ac.kr